

정도로 새까맣고, 가장자리는 구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. 대기가 칠흑빛으로 물들고 있었음에도 흰꼬리열대새며, 군함조며, 제비갈매기 무리 등을 비롯해 수많은 바닷새 무리가 피난처를 찾아 사방천지에서 섬으로 몰려들어, 그 우짖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네.

아침 9시가 다 되어갈 무렵, 무시무시한 소리가, 마치 격류가 천둥에 휘말려 산꼭대기에서부터 굴러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바다 쪽에서 들려왔네. 모두들 “태풍이 왔다!”며 소리 질렀고, 그 순간 회오리바람이 사납게 몰아쳐 호박섬과 그 해협을 뒤덮고 있던 안개를 걷어냈지. 그러자 갑판에 사람을 가득 실은 생제랑호가 백일하에 그 모습을 드러냈네. 장루 돛대와 활대는 상갑판으로 내려둔 채, 선기를 한 폭 내려 조기를 달고, 선두에는 네 개의 닻줄을, 선미에는 지장선 하나를 늘어뜨린 모습이었지. 배는 호박섬과 육지 사이, 프랑스 섬을 띠처럼 둘러싸고 있는 암초지대 이쪽 편에 닻을 내리고 있었으니, 이전까지 배가 지나간 적 없었던 곳으로 암초 지대를 넘어왔던 게야. 생제랑호는 난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뱃머리를 내맡겼고, 해협 안쪽으로 파도가 들이칠 때마다 이물이 아주 통째로 들어올려져서 배 밑바닥이 허공에 떠있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네. 허나 이런 요동 속에서도 물속에 잠겨버린 고물은 꼭 대기에 있는 고물장식까지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서, 마치 침몰되길라도 한 것 같았지. 바람과 바다가 배를 육지로